

나주 에너지국가산단 조성 본격화

사업비 3519억원 규모

국토부 최종 승인 조성 본 궤도

이르면 이달중 토지 보상 착수

나주시는 국토교통부의 산업단지계획 최종 승인을 받아 총사업비 3519억원 규모의 에너지 국가산단 조성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고 밝혔다. 나주 왕곡면 덕산리 일원 124만㎡(약 38만 평) 부지에 걸쳐 조성하는 에너지국가산단은 이르면 이달 중, 늦어도 8월부터 토지 보상 절차에 착수해 내년 상반기에 착공할 예정이다. 오는 2032년 준공을 목표로 부지 조성과 기반 시설 구축 공사가 7년간 진행된다. 나주시는 에너지국가산단이 한국전력공사 본사, 한국에너지공단(켄텍), 에너지기술연구원 등 산학연 인프라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에너지산업 클러스터로의 발전을 구상하고 있다. 국가산단 조성 사업은 에너지·첨단 기술 기업 간 기술 융합과 산업적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해



나주에너지국가산단 조성부지. 해당 산단은 나주혁신산업단지 인근에 나공사와 전남개발공사가 공동으로 2032년까지 3519억원을 투입해 124만㎡ 규모로 조성한다. <나주시 제공>

인근에 조성된 에너지밸리 전용 산단인 나주혁신산단과 연계해 추진된다. 이와 관련 윤병태 나주시장은 “에너지 국가산단 조성은 단순한 개발사업이 아니라 나주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전략산업의 출발점”이라며 “나주

혁신산단과의 연계를 통해 대한민국 대표 에너지 산업벨트를 구축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과 기업 투자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 성과를 내겠다”라고 강조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여름꽃 만개한 메타세쿼이아랜드로 오세요”

담양군 각종 편의시설 정비

담양군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관광객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메타세쿼이아랜드를 즐길 수 있도록 각종 편의시설을 정비했다. 담양군은 이번 정비를 통해 어린이놀이터의 경우 최신 안전기준을 반영한 조합놀이대로 전면 교체했으며, 어린이프로방스 내 장애인 화장실은 자동문 설치 등 리모델링을 마쳤다고 밝혔다.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메타맨발휴갈’은 노면 정비와 흙 교체를 통해 보행 환경을 대폭 개선했다. 주요 동선에는 해충기피제 자동 분사기를 설치해 여름철 감염병 예방에도 신경을 썼다. 메타세쿼이아랜드는 수국, 백일홍, 연꽃 등 다채로운 여름꽃이 만개해 방문객들에게 시각적인 즐거움과 함께 자연 속 여유를 즐길 수 있다. 울창한 메타세쿼이아 나무 아래에서 꽃과 나무, 흙과 바람이 어우러진 풍경은 자연 속에서 잠시 머무



수국, 백일홍 등 다채로운 여름꽃이 어우러져 힐링하기 좋은 담양 메타세쿼이아랜드. <담양군 제공>

르며 여유를 느끼기에 제격이다. 정철원 담양 군수는 “관광객 한 분 한 분이 불편 없이 머무르며 즐길 수 있도록 세심하게 점검

했다”며 “올해 여름엔 자연과 심, 그리고 편안함이 어우러진 메타세쿼이아랜드로 놀러 오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

강진군 농어촌 체험 ‘학생푸소’ 2300명 다녀가

상반기 프로그램 마무리

강진군의 농어촌 체험 민박 프로그램인 ‘학생푸소’가 올해 상반기 행사를 마무리했다. 3월 강진군에 따르면 전국 18개 학교에서 총 2344명의 학생이 강진을 찾아 농촌 현장에서 삶의 여유를 배우고 정서적 성장을 경험했다. 학생푸소는 농가에 머물며 농작물 수확, 다도·

민화·생태 체험 등을 통해 도시 학생들이 감성과 인성을 기를 수 있도록 구성된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강진군의 농특산물을 활용한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을 제공해 호응을 이끌었다. 상반기에 광주권에서 9개 학교, 전남권 5개 학교, 서울과 부산 각 1개 학교, 교육청 등 유관기관 2곳이 참여했다. 전남권 학교의 참여는 작년 대비

14% 증가해, 전남도내 농어촌 체험 교육 수요의 확대라는 긍정적 신호로 해석된다. 2024년 상반기에 비해 참여 학교는 20% 늘었고, 참여 학생 수는 4.13% 증가했다. 하반기에도 참여열기는 이어질 전망이다. 현재까지 20개 학교가 예약을 마쳤고, 참여 예정 학생은 2850명에 이른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푸소만의 차별화된 콘텐츠를 더욱 풍성하게 구성해 푸소체험을 하는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i@kwangju.co.kr

함평군, 폭염 대비 농업인·농작물 피해 예방 총력

야외 작업 등 대응 수칙 준수 당부

함평군이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됨에 따라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농업인과 가축·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함평군은 평년보다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영농 활동 중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농업인 스스로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행동 수칙을 실천할 것을 당부했다. 야외 작업 시에는 20분마다 한 컵 이상의 물을 마시고, 시원한 그늘에서 휴식을 취해야 한다. 또 모자 착용, 밝고 헐렁한 복장 착용 등으로 체온을

낮추고, 작업 중에는 동료들과 수시로 상태를 확인해 서로의 건강 상태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또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벼의 경우 고온기에는 물 흘리대기를 해야 수온을 낮출 수 있고 고온에서 흡수가 억제되는 규산과 칼륨 시비를 해야 고온 장해를 줄일 수 있다. 발작물은 잡초 제거 등을 통해 토양 수분을 유지하고 지온 상승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함평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무더위 속 과도한 농작업은 건강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작업량을 줄이고 자주 쉬는 등 폭염 대응 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찾아가는 이동세탁차량 전달식에 참석한 김한중 장성군수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장성군 ‘어르신 찾아가는 이동세탁차량’ 전달식

8300만원 투입 신형 차량 도입

“어르신 뵈러는 저한테 맡겨 주세요.” 장성군은 최근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장성군사회복지협의회 등 유관기관과 ‘찾아가는 이동세탁차량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이동세탁차량’은 저소득 어르신 등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찾아가 세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빨래 차’다. 세탁물 수거부터 배달까지 지원해 주민 호응이 높다. 기존 세탁차량이 운행한 지 10년이 넘어 교체가

필요해지자 장성군은 지난해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동세탁차량 매칭지원사업’ 공모를 신청해 선정됐다. 총 83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신형 이동세탁차량 도입을 추진했다. 새로 제작된 이동세탁차량은 1.2t 규모 화물차로, 24kg 세탁기 2대를 탑재하고 있다. 운영은 군의 지원을 받아 장성군지역자활센터가 맡는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찾아가는 이동세탁차량이 사람 중심의 따뜻한 복지 실현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폭염에…화순 파크골프장 오후 1~3시 휴장

모자·마스크·냉감 토시 착용 당부

화순군이 7월과 8월 파크골프장 운영을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휴장한다. 최근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가장 기온이 높은 오후 1시부터 3시

까지 화순·능주 파크골프장 운영을 중단한다. 오후 입장은 3시부터 가능하며 오전 입장은 종전 그대로 7시부터 가능하다. 조형재 화순군 관광체육실장은 “이용자는 반드시 챙 넓은 모자, 햇빛가림 마스크, 냉감 토시 등을 착용하고 생수를 챙겨 수분 보충을 수시로 해달라”고 당부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DK
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가전이 한 곳에!



스탠드 공기청정살균기

벽걸이 공기청정살균기



제습기



레인지후드



전기룩탑

공기청정살균기 | 공기청정기 | 공기순환기 | 제습기 | 레인지후드 | 전기룩탑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